

## 한국판 PSI-II (the Personal Style Inventory-I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이 민 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울증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을 측정한다고 가정되는 PSI-II (the Personal Style Inventory-I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이들 요인과 우울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46명이 PSI-II, SDS 및 HDS가 포함된 질문지에 응답했다. 검사의 내적 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요인은 각각 두 개의 하위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등 두 가지 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우울 측정치를 준거변인으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요인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우울 변량을 설명해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 이론, 임상적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오래 전부터 몇몇 정신역동 및 인지적 이론가들(e. g., Bemporad, 1971; Blatt, 1974; Beck, 1983)은 성격특질에 근거해서 두 가지 유형의 우울증이 있음을 제안했다. 그 중 하나는 타인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독립과 성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Bemporad(1971)는 우울증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내재화시키는 목표 지배적 우울증

(dominant goal depression)과 기준을 내재화시키지 못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타인 지배적 우울증(dominant other depression)으로 구분했다. Bemporad에 따르면 기준을 내재화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판단에 의해 자궁심이 좌우된다. 반면 지배적 목표 성격의 소유자들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

Bemporad(1971)와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적 입장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민 규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번지 442-749 / FAX : 0331-219-2195 / E-mail : lmk@madang.ajou.ac.kr

서 Blatt(1974) 역시 성장 초기의 상실 때문에 유발되는 의존성 우울증과 성장 후기의 외적인 부정적 평가를 수용하면서 발달되는 내사된 또는 자기비판적 우울증(self-criticism depression)을 구분했다. Blatt(1974)는 개인이 성숙한 자기표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대신 자기-가치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인관계를 추구하면 “의존적” 성격이 발달한다고 제안했다.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자신을 대인관계에서 버림받은 경험을 했거나 또는 버림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면 의존적 우울증(anacletic or dependency depression)이 된다. 이 유형의 우울증은 무력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호와 사랑에 대한 소망 등으로 특징화된다.

“자기-비판적인” 성격은 관계 내에서 자기표상을 적절하게 발달시키지 못하고 개성, 능력, 성취를 통해 자기-가치감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Blatt(1974)는 자기-비판적인 사람이 그의 내적 기준이나 타인이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사적 우울증(introjective depression)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강한 열등감, 죄책감, 및 무가치감이 이 우울증 유형의 특징이다(Blatt, D'attlitti, & Quinlan, 1976).

인지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Beck(1983)도, 정신역동적 입장의 Bemporad(1971) 나 Blatt(1974)와 유사하게 성격특질과 관련해서 우울증이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그는 Blatt(1974)의 의존적 성격과 자기-비판적 성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지향성 성격과 자율지향성 성격을 제안했다. Beck에 의하면, “사회지향성” 성격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교환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타인의 배려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는 사회지향성향이 높은 사람이 우울해지면 그들이 보이는 임상적 특징은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지배적이며 전통적으로 반응성 우울증과 관련될 수 있는 증상들을 주로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은 더 고독해하고, 불안증상이 심하며, 잘 울지만, 도움을 잘 청하고, 치료에 대한 절망감을 적게 느끼고, 기분의 변화가 심하지만, 치료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반면 “자율

성” 우울증은 Blatt(1974)가 제안한 내사적 우울증과 유사하게 성취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된다고 가정된다. 이 유형의 우울증은 패배감, 무망감, 치료에 대한 비판적 생각, 자기-비난, 실패감, 흥미나 즐거움에 대한 깊은 상실감, 비반응적이고 지속적인 우울감을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우울증의 유형에 대한 여러 이론들 간에는 명백한 공통점들이 있다. 우선 위의 모든 이론가들은 우울증이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성격의 차이에 근거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이론가들이 가정하는 성격의 한가지 차원은 중요한 타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몰입하는 반면 다른 차원은 개인적인 성취에 과도하게 몰입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격특성이 개인의 특정 생활사건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울증과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성격유형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의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Blatt, D'Afflitti, 및 Quinlan(1976)은 의존성, 자기비판, 및 효능감 척도가 포함된 우울경험질문지(DEQ: Depressive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제작했으며 Welkowitz, Lish, 및 Bond(1985)는 DEQ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개정판 우울경험질문지(RDEQ: Revised Depressive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제작했다.

Beck, Epstein, Harrison 및 Emery(1983)는 개인의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AS (Sociotropy and Autonomy Scale)를 제작했다. 이 척도는 사회지향성을 측정하는 문항 30개와 자율지향성을 측정하는 문항 30개,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동의정도에 따라 0점(전혀 그렇지 않음: 0%)에서 4점(항상 그렇: 100%)까지 5점의 빈도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Beck 등(1983)이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 사회지향성 척도는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10문항)’, ‘애착 및 격리에 대한 염려(13문항)’ 및 ‘타인을 즐겁게 하기(7문항)’ 등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자율지향 척도는 ‘개인주

의적 및 자율적 활동(12문항), '통제로부터의 자유(12문항)', 및 '고독을 즐김(6문항)' 등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 SAS는 Clark 과 Beck(1991)에 의해서 개정판이 만들어졌다. 개정판 SAS의 사회성 척도는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6개의 문항이 원판의 문항과 동일한 것이며 한 개의 척도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척도는 세 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되며 각각 고독/대인둔감성(16개 문항), 독립성(16개 문항), 및 개인적 성취(14개 문항) 척도로 명명되었다. 고독/대인둔감성 척도 16개 문항 중 5개는 원판 자율성 척도에 포함된 것들이며 한 문항은 원판의 사회성 척도에 포함된 것을 역으로 채점하도록 했다. 독립성 척도 16개 문항 중 6개와 개인적 성취 척도 14문항 중 9개 역시 원판의 자율성 척도에 포함된 것들이었다. 개정판 SAS 역시 원판과 마찬가지로 동의정도에 따라 0점(전혀 그렇지 않음: 0%)에서 4점(항상 그렇: 100%)까지 5점의 빈도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네 개의 차원(하나의 사회성 척도와 3개의 자율성 하위척도)에서 별도로 채점하게 되어 있으며 Clark 과 Beck(1991)은 사회성 차원과 자율성의 고독/대인둔감성 차원이 우울증과 특히 중요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Beck의 우울증 이론에 근거해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는 역기능적 태도척도(DAS: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Weissman & Beck, 1978)이다. 이 척도는 Cane, Olinger, Gotlib 및 Kuiper(1986)에 의해서 '타인의 인정' 및 '수행의 평가'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두 요인은 사회지향성과 타인지향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우울증과 관련된 두 가지 성격유형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DAS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측정하는 총 40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7점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최근에는 Beck, Epstein, Harrison 및 Emery

등(1983)이 제작한 SAS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Robins와 그의 동료들(1994)이 앞서 소개한 척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인의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했다. PSI-II(the Personal Style Inventory-II)라고 명명된 이 척도는 사회지향성을 측정하는 24개 문항과 자율지향성을 측정하는 24개 문항,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동의정도에 따라 1-6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지향성 척도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7문항)', '의존성(7문항)' 및 '기분맞추기(10문항)' 등 세 가지 하위 차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율지향성 척도 역시 '완벽주의/자기비판(4문항)', '통제욕구(8문항)' 및 '방어적 분리(12문항)' 등 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장애에 대한 치료기법을 적용할 때 환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재발율도 낮출 수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다(Beutler, Consoli, & Williams, 1995). 이와 함께 우울증의 발생과정과, 증상 및 효과적인 치료기법을 탐구하는 데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연구보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Zettle & Herring, 199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 치료기법을 탐색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Robins 등(1994)의 PSI의 심리측정상의 특성과 요인분석을 통한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우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 방법

### 대상

본 연구에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618명이 참여했다. 이 중에서 질문지에 성실하게 반응하지 않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는

72명이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546명의 자료였다. 그 중에서 남학생은 316명이었으며 여학생은 230명이었고 이들의 연령범위는 18세에서 26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1.11세(표준편차=2.18)였다.

## 도 구

연구참여자들은 척도들이 포함된 질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다. 질문에 포함된 척도들은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을 측정하는 PSI개정판(Personal Style Inventory-Revised; Robins 등, 1994)과 개인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는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 Zung, 1965) 및 HDS(Hoplessness Depression Scale; 이영호, 1993)였다.

PSI-II: 사회성과 자율성 성격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PSI개정판(Modified version of the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을 번안해서 사용했다. 이 검사는 Robins 등(1994)이 개발한 것으로 사회성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 공히 24개씩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부터 6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다. 두 가지 척도 모두 높은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ennan, Allen, & Driscoll, 1995; Robins et al., 1994). 두 가지 척도간의 상호상관은 낮은 편이며 우울증상과는 낮은 것에서부터 중간정도로 상관되어 있으며, 이론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들과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obins, Bagby, Rector, Lynch, & Kennedy, 1977).

우울증 척도: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DS와 HDS를 사용했다. SDS는 Zung(1965)이 제작한 자기평정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로서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역한 것을 사용했으며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암시하고 있는 상태의 경험빈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ronbach의

알파계수 .79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반분신뢰도 계수는 .73이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알파계수 .80의 내적 합치도와 반분신뢰도 계수 .74를 보였다. HDS (Hoplessness Depression Scale)는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 이론을 기초로 하여, 무망감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호(1993)가 제작한 무망감 우울증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는 우울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척도들의 문항 중에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증상 및 자존심 저하와 관련된 문항들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제작되었다. 일반인들에게 실시한 결과, 알파계수 .90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 절 차

연구자가 한글로 번안한 개인양식검사 개정판(PSI-II)을 한 명의 임상심리전문가와 3명의 임상심리 전공 대학원생이 검토해서 표현내용을 수정했다. 이틀 네 명의 검토 결과를 수합해서 연구자가 다시 수정 보완한 다음 영어와 한국어로 자유롭게 구사하는 두 명이 영문으로 역번역했다. 역번역 내용과 원래의 영문 검사문항을 대조하면서 최종적인 문항내용을 확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PSI-II, SDS 및 HDS를 심리학 관련 강의시간에 배포하고 대학생들에게 응답하도록 했다. 질문지는 익명으로 작성하게 했으며 질문지를 작성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참여 점수를 부여했고 질문지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질문지의 내용과 연구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결 과

### PSI-II 및 우울검사의 심리측정적 특성

#### 검사점수의 성별 비교

성별 PSI-II, SDI 및 HDS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성별 개인양식검사와 우울증 검사 결과 : 평균(표준편차)

	남자	여자	전체	F	p
사회지향성 척도	93.68(12.05)	95.01(12.04)	94.24(12.06)	1.68	$p=.20$
타인에 대한 배려	27.96( 4.49)	29.10( 4.43)	28.44( 4.49)	8.58	$p<.01$
의존성	26.49( 4.72)	26.90( 4.41)	26.66( 4.59)	1.06	$p=.30$
기분 맞추기	39.23( 5.91)	39.01( 6.35)	39.14( 6.09)	.16	$p=.68$
자율성 척도	87.19(12.16)	88.39(12.26)	87.69(12.21)	1.28	$p=.25$
완벽주의/자기비판	14.73( 3.12)	15.41( 3.08)	15.02( 3.12)	6.37	$p<.05$
통제욕구	30.05( 5.29)	31.35( 5.37)	30.60( 5.36)	7.94	$p<.01$
방어적 분리	42.41( 6.43)	41.63( 6.54)	42.08( 6.48)	1.92	$p=.16$
SDS	40.16( 7.27)	41.67( 6.98)	40.80( 7.18)	5.96	$p<.05$
HDS	33.99( 9.30)	36.10( 9.55)	34.88( 9.46)	6.64	$p<.05$

개인양식검사에서의 성별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두 가지 척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지향성 척도의 타인에 대한 배려 차원과,  $F(1,544)=8.58, p < .01$ , 자율성 척도의 완벽주의/자기비판 차원,  $F(1,544)=6.37, p < .05$ , 및 방어적 차원에서,  $F(1,544)=7.94, p < .01$ ,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척도인 SDS와,  $F(1,544)=5.96, p < .05$ , HDS에서도,  $F(1,544)=6.64, p < .05$ ,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척도의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개인성향질문지의 내적합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향성 척도와 자율지향성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82 와 .81로 확인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연구참여자 546명 중 51명에게는 일차 설문지를 수거한 10주 후에 동일한 질문에 다시 한 번 응답해 주기를 부탁했다. 검사-재검사 점수의 평균(표준편차)과 두 검사 점수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지향성 척도는  $r=.77$ , 자율성 척도는  $r=.80$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obins 등(1994)이 5-13주 간격으로 실시

해서 얻은 검사-재검사 신뢰도(사회지향성,  $r=.80$ , 자율성,  $r=.80$ )와 유사한 결과이다. 각 척도의 하위차원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68-.81까지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 측정치들 간의 상관분석

##### PSI-II 하위차원들 간의 상호상관

개인양식 질문지(PSI)의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 간의 상관과 각각의 하위 차원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간의 상관은  $r=.26$  으로 나왔다. 사회지향성 총점과 여기에 포함된 세 가지의 차원, 즉 타인에 대한 배려, 의존성 및 기분맞추기 차원은 각각  $r=.82, .70$  및  $.85$  였다. 그리고 이들 차원들 간의 상호상관은  $r=.11$ 에서  $.58$ 까지 였다.

자율지향성 총점과 하위차원 즉 완벽주의/자기비판, 통제욕구, 및 방어적 분리 간에는 각각  $r=.64, .85, .87$ 로 밝혀졌다. 그리고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하위 차원들 간의 상관계수는  $r=-.01$ (기분맞추기와 방어적 분리)에서부터  $r=.46$ (의존성과 완벽주의/자기비판)까지로 다양했다.

##### PSI-II 하위 차원들과 우울간의 상관

개인양식 질문지의 사회지향성 척도 및 자율지향성

표 2. 검사-재검사 평균(표준편차) 및 두 검사 점수간의 상관계수

척도	일차검사	이차검사	상관계수
사회지향성 척도	91.17(12.60)	92.41(15.40)	.77***
타인에 대한 배려	28.12( 3.98)	29.16( 5.05)	.70***
의존성	26.12( 4.95)	25.97( 4.69)	.75***
기분 맞추기	36.94( 7.05)	37.58( 8.02)	.81***
자율성 척도	92.69(12.86)	92.97(95.97)	.80***
완벽주의/자기비판	15.16( 3.51)	16.00( 3.56)	.75***
통제욕구	32.62( 5.72)	33.59( 5.93)	.75***
방어적 분리	44.86( 6.43)	46.13( 7.97)	.68***

\*\*\*  $p < .0001$

표 3.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요인 및 하위 차원들 간의 상관

척도	1	2	3	4	5	6	7	8
1. 사회지향성	1.00							
2. 타인에 대한 배려	.82***	1.00						
3. 의존성	.70***	.41**	1.00					
4. 기분 맞추기	.85***	.58***	.33***	1.00				
5. 자율지향성	.26***	.26***	.15**	.21***	1.00			
6. 완벽주의/자기비판	.43***	.46***	.26***	.31***	.64***	1.00		
7. 통제욕구	.18***	.18***	.19***	.08	.85***	.44***	1.00	
8. 방어적 분리	.13*	.11	-.01	.17***	.87***	.38***	.56***	1.00

\*\*\*  $p < .0001$  \*\*  $p < .001$  \*  $p < .01$

척도와 두 척도의 하위 차원들과 우울척도인 SDS와 HDS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주성분 분석

개인양식 질문지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다른 측정도구들과 마찬가지로 PSI-II도 두 개의 요인을 가정하고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요인 수를 두 개로 한정해서 주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이론과 상반된 요인에 부하된 문항은 두 개였으며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이 되지 않거나 두 개의 요인 모두에 거의 동등하게 부하된 문항들은 모두 9 개였다.

이들 11 개 문항을 제외한 37개의 문항 중 19개 문

표 4. 개인양식 질문지 점수와 우울점수 간의 상관관계

개인양식질문지(PSI-II)	우울질문지	SDS	HDS
사회지향성 척도		.24**	.35**
타인에 대한 배려		.23**	.32**
의존성		.11*	.20**
기분 맞추기		.23**	.31**
자율지향성 척도		.26**	.32**
완벽주의/자기비판		.23**	.32**
통제욕구		.18**	.24**
방어적 분리		.22**	.26**

\*\*  $p < .001$  \*  $p < .01$

항은 사회지향성 요인에, 그리고 나머지 18개 문항은 자율지향성 요인에 속해서 두 요인에 거의 비슷한 문항수가 포함되었으며 내적 합치도도 유사했다.(사회지향성  $\alpha = .83$ ; 자율지향성  $\alpha = .82$ ). 사회지향성 요인과 자율지향성 각각의 요인에 포함된 이론적 차원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별도로 해서 주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 사회지향성 척도

사회지향성 요인에 포함된 19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가의 scree plot 검사 결과, 처음 두 번째 요인과 그 이후의 요인들 간의 고유가의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두 개의 요인 모두 고유가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의 수를 2개로 정해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성분 분석 결과, 요인 I은 변량의 17.35%를, 그리고 요인 II는 16.30%를 설명해주고 이들 두 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33.65%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I에 포함된 문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이나 존경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및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느끼는 바를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평가한다’ 등 9개 문항이었으며 주로 타인들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승인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항 내용들을 고려해서 요인 I은 ‘인정에 대한 욕구’라고 명명했다.

두 번째 요인에 포함된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거절하기가 힘들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라도 그 관계를 쉽게 끝내지 못한다’ 및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 등 10개의 문항으로, 자신의 욕구보다

표 5. 사회지향성 척도의 요인별 문항내용과 요인 부하량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 I	요인 II
5.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쓴다	.369	<b>.479</b>
7.	나는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	<b>.539</b>	.235
9.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407	<b>.503</b>
11.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라도 그 관계를 쉽게 끝내지 못한다	-.044	<b>.658</b>
1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득을 당한다	.253	<b>.451</b>
15.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너무 애를 쓰는 편이다	.378	<b>.470</b>
19.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자주 느낀다	<b>.342</b>	.308
23.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이나 존경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	<b>.672</b>	-.008
25.	나는 남들에게 잘 대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79	<b>.424</b>
27.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경우에 내가 연락할 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믿고싶다	<b>.380</b>	.118
2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해한다	.392	<b>.476</b>
31.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b>.650</b>	.247
33.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매우 불안정해진다	<b>.545</b>	.095
35.	나는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거절’하기가 힘들다	.191	<b>.661</b>
37.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주위에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황한다	<b>.476</b>	-.033
39.	내 행동이 상대방의 기대와 일치할 때가 가장 편하다	<b>.439</b>	.208
41.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둔다	.013	<b>.495</b>
4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느끼는 바를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평가한다	<b>.554</b>	.079
47.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	-.041	<b>.620</b>

는 타인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요인 II는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명명했다.

자율지향성 척도

사회지향성 요인과 마찬가지로 자율지향성에 포함된 18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가의 scree plot 검사 결과, 처음 두 번째 요인과 그 이후의 요인들 간의 고유가의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두 개의 요인 모두 고유가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의 수를 2개로 정해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율지향성 척도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요인 I은 변량의 18.96%를, 그리고 요인 II는 15.03%를 설명해주고 이들 두 개의 변인은 전체변량의 33.99%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I에 포함된 문항은 ‘다른 사람이 내 계획에 대해 뭔가 언급하면 통

계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하는 충고는 좀처럼 믿지 않는다’ 및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내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화가 난다’ 등 10개 문항이었으며 주로 타인들로부터 받는 충고나 지시 등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관여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항 내용들을 고려해서 요인 I은 ‘간섭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명명했다.

두 번째 요인에 포함된 문항은 ‘일을 적극적으로 완수하지 못하면 스스로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 ‘나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내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렵다’,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및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나는 매우 화가 난다’ 등 8개의 문항으로, 독자적인 수행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의존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요인 II는 ‘독립에 대한 욕구’라고 명명했다.

표 6. 자율지향성 척도의 요인별 문항내용과 요인 부하량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 I	요인 II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편이다	.185	<b>.268</b>
4.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강요하면 쉽게 짜증이 난다.	<b>.410</b>	.339
6.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43	<b>.378</b>
10.	내가 우울할 때 남이 동정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b>.314</b>	.189
12.	관계를 맺으면, 사람들은 흔히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270	<b>.329</b>
16.	나는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221	<b>.550</b>
18.	내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b>.509</b>	.251
20.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중대한 일을 혼자서 결정하곤 한다	<b>.321</b>	.156
24.	일을 적극적으로 완수하지 못하면 스스로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	.007	<b>.711</b>
32.	나는 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내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렵다	.091	<b>.662</b>
34.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사람이 충고를 하면 간섭받는 느낌이 든다	<b>.637</b>	.065
36.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이나 일에 대해 지시를 하면 불쾌해진다	<b>.641</b>	.303
38.	다른 사람이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하면 내 사생활이 침해당한 느낌을 받는다	<b>.410</b>	.194
40.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나는 매우 화가 난다	.132	<b>.604</b>
42.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하는 충고는 좀처럼 믿지 않는다	<b>.689</b>	-.157
44.	개인적인 독립성이나 자유가 제약을 받을 때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화가 난다	.400	<b>.513</b>
46.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내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화가 난다	<b>.663</b>	.284
48.	다른 사람이 내 계획에 대해 뭔가 언급하면 통제 당한다는 생각이 든다	<b>.722</b>	.176



표 7.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 차원간의 상호상관 및 우울과의 관계

척도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우울척도	
	1	2	3	4	5	6	SDS	HDS
1.사회지향성	1.00						.25***	.39***
2.인정에 대한 욕구	.86***	1.00					.20***	.31***
3.타인에 대한 배려	.91***	.56***	1.00				.23***	.32***
4.자율지향성	.19***	.24***	.11**	1.00			.19***	.25***
5.간섭에 대한 거부	.09*	.13**	.05ns	.92***	1.00		.16***	.19***
6.독립에 대한 욕구	.27***	.37***	.16***	.86***	.58***	1.00	.17***	.26***

\*\*\*  $p < .0001$  \*\*  $p < .001$  \*  $p < .05$

추출된 요인들 간의 상호상관 및 우울과의 상관

주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및 각각의 하위 차원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인분석을 통해 새로 추출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r = .19$ 로 Robons(1994)등의 개인양식질문지 48개 문항 모두를 사용했을 때( $r = .26$ ) 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각 요인의 총점과 이에 포함된 하위차원들 간의 상호상관은 사회지향성의 경우,  $r = .86$ 과  $.91$ , 자율지향성의 경우,  $r = .92$ 와  $.86$ 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 전의 사회지향성 요인( $r = .70 \sim .85$ )과 자율지향성 요인( $r = .64 \sim .87$ )의 총점과 하위 차원들 간의 상관계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뿐만 아니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에 포함된 하위 차원들 간의 상호상관관계도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새로 추출된 차원들 간의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Ronins 등(1994)의 지침에 따른 요인내의 세 가지 차원들 간의 상호상관을 구한 결과는 사회

지향성의 경우  $r = .33 \sim .58$ 이었고, 자율지향성의 경우는  $r = .38 \sim .56$ 이었다. 반면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요인에 포함된 두 개의 차원들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r = .56$ 과  $r = .58$ 로 나타났다.

중다회귀 분석

주성분 분석에 의해서 추출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척도가 우울수준을 예언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우울측정치를 준거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투입변인의  $\alpha$  수준을  $P < .05$  으로 하고 제거변인의  $\alpha$  수준을  $0.50$ 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요인 모두가 두가지 우울측정치를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8에 제시되어 있듯이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두가지 요인은 SDS 점수 변량의 8.5%를, 그리고 HDS 점수 변량의 16.4%를 설명해 주었다.

표 8. 우울 수준에 대한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 요인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준거변인	R <sup>2</sup>	Beta	df	SE	t	유의도
SDS	사회지향성	.063	.155	1	.029	5.340	.000
	자율지향성	.085	.108	1	.030	3.562	.000
HDS	사회지향성	.129	.322	1	.036	8.062	.000
	자율지향성	.164	.191	1	.038	4.787	.000

## 논 의

본 연구는 우울증의 취약성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PSI-I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546명의 남녀 대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처리한 결과, 사회지향성 척도 및 자율지향성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82 와 .81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적 합치도는 Robins 등(1994)이 발표한 사회지향성 척도 .90과 자율지향성 척도 .86 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Laos, Verrier, Gayant 및 Dheperot(1998)이 프랑스판 PSI-II를 실시해서 구했던 내적 합치도(사회지향성=.83; 자율성=.72)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10주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사회지향성 척도와 자율지향성 척도 각각,  $r=.78$  및  $.81$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obins 등(1994)이 5-13주 간격으로 실시해서 얻은 검사-재검사 신뢰도(사회지향성  $r=.80$ , 자율성  $r=.80$ )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 척도가 비교적 높은 내적 합치도와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Robins 등(1994)이 제안한 개인양식질문지(PSI-II)의 요인구조 및 하위차원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두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들은 원래 가정된 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이 측정치가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두 개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총 48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이거나 두 개의 요인의 부하량에 별 차이가 없는 문항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요인 모두 두 개의 하위차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요인 모두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Robins 등(1994)의 가정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Robins 등(1994)이 PSI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요인의 하위차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여러 선행 연구 결과의 검토를 통해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각각에 세 가지의 구성개념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각 차원에 10개씩의 문항을 포함시켜 요인분석한 결과 부하량이 .30이하이거나 두 개의 요인에 비슷하게 부하된 문항들을 삭제해서 최종적으로 48개의 문항을 선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이론적으로 가정된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Robins 등(1994)이 제안한 이론적 차원과는 다르게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요인에서 각각 두 개의 하위차원이 확인된 또 한가지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이 다른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 검증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추출된 두 개의 요인 및 각각에 포함된 하위차원들 간의 상호상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지향성 요인과 자율지향성 요인간의 상관은  $r=.19$ 로 정적이지만 낮은 상관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지향성에 포함된 하위차원들과 자율지향성에 포함된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r=.05\sim.24$ ). 그러나 두 개의 요인 총점과 각각의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사회지향성  $r=.86$  과  $.91$ ; 자율지향성  $r=.92$  와  $.86$ ). 이와 함께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요인에 포함된 두 개의 차원들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r=.56$ 과  $r=.58$ 로 비슷하게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라는 두 개의 구성개념이 부분적으로 중첩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특질을 측정한다는 Beck(1983) 및 Robins 등(1994)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과 우울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사회지향성 요인과 자율지향성 요인 및 각각에 포함된 모든 하위차원들은 두 개의 우울측정치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긴 했으나 상관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r=.16\sim.35$ ).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지향성이 자율지향성에 비해 우울측정치의 변량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다회귀 분석 결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두 가지 요인은 SDS 점수 변량의 8.5%를, 그리고 HDS 점수 변량의 16.4%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두 개의 요인이 우울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도 설명수준이 낮은 것은 이 척도가 우울증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에 취약한 성격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울과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지만 그 정도가 높지 않아야 한다는 Robins 등(199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울의 취약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PSI-II를 번안해 그 신뢰도와 요인구조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추출된 요인들과 우울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우울 취약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개인적 취약성과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k(1983)이 제안한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을 검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해온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을 검증하고 PSI-II가 개인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측정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대학생과 일반인 및 임상집단 등, 표집대상을 달리했을 때도 PSI-II의 요인구조가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추출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개인적 취약성과 일치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울 수준이 증가되는 지, 즉 개인적 특질과 스트레스 사건의 상호작용 효과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영호(198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발표.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Beck, A.T.(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J. Clayton & J.E. Barr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pp. 265-290) New York: Raven Press.
- Beck, A.T., Rush, A.J., Epstein, N., Harrison, R.P., & Emery,G.(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manuscrip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emporad, J. R.(1971). New views on the psychodynamics of the depressive character. *World Biennial of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1, 219-244.
- Beutle, L. E., A.J., & Williams, R.E.(1995). Integrative, and eclectic therapy in practice. In B. Bonger & L. E. Beutler(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otherapy*(pp. 274-29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att, S.J.(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clitic and introspective depress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 107-157.
- Blatt, S.J., & D'Affliti, J. P., & Quinlan, D. M.(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Cane, D. B., Olinger, L. J., Gotlib, I. H., & Kuiper, N. A.(1986). Factor structure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in a student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307-309.
- Clark, D. A., & Beck, A. T. (1991). Personality factors in dysphoria: A psychometric refinement of Beck's Sociotropy-Autonomy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 Assessment*, 13, 369-388.
- Robins, C.J., Bagby, R.M., Rector, N.A. & Kennedy, S.H.(1997). Sociotropy, autonomy, and pattern of symptom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 comparison of dimensional and categorical approach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3), 285-300.
- Weissman, A. N., & Beck, A. T.(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Toronto, Canada.
- Welkowitz, J., Lish, J. & Bond, R.(1985).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Revis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9-94.
- Zettle, R.D. & Herring, E.L.(1995). Treatment utility of the sociotropy/autonomy distinction: Implications for cognitive 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2), 280-289.
- Zung, W.W.K.(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 원고접수일 1999. 10. 12  
수정원고접수일 2000. 1. 10  
게재결정일 2000. 2. 2 ■

##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PSI-II (the Personal Style Inventory-II)**

**Min-Kyu Lee**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SI-II which was developed to assess an individual's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his study investigated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of the scale and depression. Five hundred forty six college students responded to the PSI, SDS, and HDS. The Korean version of PSI-II was found to have relatively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the test-retest reliability. Factor analyses on the items of the sociotropy and autonomy constructs revealed that both constructs have two factor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created on the basis of the composite scores on the sociotropy and autonomy constructs accounted for a significant amount of variance in predicting depression.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linical implic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